도 여성 농업인들 경제주체로 부상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여성이 농업 주 종사 인구의 53.3%… 재무 · 경영의사결정 참여도는 낮아

도내 여성 농업인들이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농업의 주 종사 인구 중 여성 비중은 53.3%로 조사됐다.

또 가족노동에서의 여성비율은 45.7%, 고용노동에서의 여성비율은 78.7%, 농외소득 활동 참여율은 66.8%나 되는 등 여성 소득 활동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담당 정도는 생산작물 결정(55.6%)이나 농산물 생산(58.6%) 등에서 참여율이 높았다.

특히 농업기술과 정보에 관심이 많았고(5점 척도에 3.35점) 농사분야에서의 전문가를 희망(3.30점)하고 농업인으로서의 직업적 자부심도 비교적 높은(3.19점)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자신의 직업적 지위에 대해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비율은 39.3%나 되고 여성농업인 명의로 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2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재무 및 경영의사결정 참여도(26~36%)는 배우자에 비하여 낮은 편으로 조사돼 농가 내 경영인으로서의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을 전문인력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4대 기업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대 기업 경제연구소장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소장,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장, 문재인 전 대표,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전북연구원 조경욱 연구위원(여성정책연구소)은 "여성농업인이 경제활동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에서 오랜 경험과 농촌자원을 활용할 노하우 등을 갖고 있는 40~50대 여성농업인을 전문인력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또 농업의 핵심인력으로 6차 산업인 농산물가공이나 체험교육장 등에 관심이 높지만 교육참여 경험(27~28%)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농산물가공기술, 농산물유통·마케팅 기술 등 전문 농업교육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에 상응하는 지위향상은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시급한 선결과제다"면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공동경영인등록제도 활성화, 여성농업인관련 조례정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추진 등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도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

행자부 장관상 수상… '수평적 확장성의 지식행정' 구현 효과

전북도는 '제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돼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조직 구성원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 조직 내 보편적 지식으로 공유·활용토록 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킨 행정 및 민간·공공 기관에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식행정·경영상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관 전반의 지식기반 업무 전략, 지식행정활동 체계, 지식활동 성과 창출 등 종합 평가 대상으로 제출자료의 서면심사, 기관방문 현장실사, 최종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지식대상'에 응모해 우수상이라는 입상을 수상했다.

전북도는 이번 '우수상' 수상 배경을 민선 6기 '수평적 확장성의 지식행정' 구현 때문으로 분석했다.

예컨대 지식등록 활용 활성화 위한 분기별 콘테스트 개최 및 시상과 도정의 역점시책 관련 국내·외 벤치마킹, 연수보고서 결과 공유에 따른 우수실행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전북도 오택림 기획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직 내 집단지성 구현에 더욱더 노력, 잘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잘하는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소 구제역 일제 예방백신 접종

전북도, 17일~11월 4일까지

전북도는 소 구제역 발생예방과 차단방역강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3주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구제역 일제예방접종은 올해 4월 일제접종 이후 6개월이 경과돼 보강접종이 필요한 소 37만 6,000두(1만1,000호)가 대상이다.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직접 구입해 접종하고, 50두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무상으로 공급 접종한다.

또한, 자가접종이 어려운 50두 미만 및 노령 농가는 공개업 수의사 등이 무상으로 접종 시술을 지원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일제접종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경각심을 갖고 축사내외 및 출입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실시 등 적극적인 차단방역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신광영 기자

한국민속예술축제 ·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16일까지 열려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북도, 전주기접놀이보존회 · 김제청소년 농악단 출전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13~16일까지 4일간 전북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된다.

〈본보 10월 12일자 1면〉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도, 전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제57회 한국민속예술제조직위원회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한다.

올해 행사는 2006년 전주에서 개최된 이래 10년여 만에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먼저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전국의 민속예술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경연을 하는 행사로 전국의 민속예술을 발굴,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규모의 민속축제이다.

지난 1958년 처음 시작됐으며, 지난 1994년, 제35회 축제부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민속예술에 대한 관심과 전승·보급을 위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총 400여 종이 넘는 민속예술 종목을 발굴했으며 140종이 넘는 종목이 국가 및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특히 봉산탈춤(1961)과 강강술래(1961), 남사당놀이(1976), 안성남사당풍물놀이(1989) 등이 이 축제를 통해 발굴·재인식됐다.

또 강강술래와 남사당놀이, 농악 등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통해 재조명된 일부 작품들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무형문화유산이 됐다.

올해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는 이북 5도를 포함한 전국 20개시도 대표 1,250여명이 각 지역을 대표해 경연을 펼치게 된다.

이밖에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도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14개 시도 대표 750여명 등 전체 참가 인원만 2,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관람객을 포함하면 총인원은 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두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단체는 대통령상과 함께 각각 2,000만 원과 1,5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전북도는 일반부에서 사)전주기접놀이보존회를, 청소년부에서는 김제청소년 농악단이 출전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연 외에도 전주의 특색 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먹거리마당과 전통공예 체험마당, 전주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들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홍보마당도 준비된다.

특히 전북도민들의 참여로 꾸려질 민속판 프리마켓 등 도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전라북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 가장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한국전통민속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창조해 나가길 기대하며, 본 대회 개최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북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도, 미국에서 대대적 세계잼버리 유치 활동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해 전북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대대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전북지사 등 잼버리 새만금 유치단이 오는 26일부터 11월1일까지 미국(휴스턴)을 방문해 새만금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한다.

이번 미국 방문은 34개국이 참여하는 세계스카우트 미주(인터아메리카) 총회에 맞춰 이뤄져 각국에 새만금이 대회 최적지라는 당위성 등을 적극 홍보하게 된다.

특히 1대 1 맨투맨 홍보에 나서 새만금 인근에 펼쳐져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한 점 등 장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앞서 도는 대회 유치를 위해 남미와 유럽, 아프리카 등을 방문해 새만금을 알린 바 있다.

한편 2023 세계 잼버리에는 전세계 약 5만명의 청소년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8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전북은 폴란드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개최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결정된다.

/뉴시스